

# “지역민 알권리 침해 멈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서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개편 중단 촉구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임시회 열고 “네이버 포털 측이 모바일 앱 제휴연론사 중 지역 언론을 배제한 개편을 실시했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형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과 배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뿌리내린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선”이라며 “네이

버의 지역 언론 배제 즉각 철회와 함께 지역과 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전자 청원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지역의 사회·경제·환경 요소 등의 진단으로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았다.

송 의장 등의 공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자치분권 위임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상호협력 증진 및 공동문제 해결 노력, 타 시·도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교역할 기대 등으로 명시됐다. /김진성 기자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참석한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한기 도의원 “‘공룡포털’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 중단하라”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오늘 본회의 채택 예고

지역언론을 배제시키고 있는 네이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발의, 이한기 의원)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언론을 배제시키고 있는 네이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발의, 이한기 의원)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한기 의원은 “사실상 지역언론을 차별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포털의 수익성과 입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네이버가 민간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의 자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포털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지역언론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부응할 줄 아는 사회적 책임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포털이 지닌

### 도의회 도정 질문

##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 맞춤형 전략 짜야”

송지용 의원 촉구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평가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송지용(원주1) 의원은 18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가 금융위원회 용역결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 연구용역에 착수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전북도에 금융위원회 평가 맞춤형 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추가 선정은 앞으로도 험난할 것”이라며 “전북도가 정부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과제와 연계한 금융위원

회의 평가요소별 맞춤형 혁신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을 위해 ▲농축산물 중심의 상품선물거래소 개설 및 투자확대를 통해 농생명·연기금 특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건립될 금융센터내에 금융관련 벤처기업과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군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자산운용 기관유치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사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

한 생활 인프라 구축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전북혁신도시에 복합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호텔 등을 유치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건립될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전북혁신도시청소년금융센터(가칭)를 열고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금융교육 등을 하며 ▲전북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발전방향과 과제들은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들도 1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전북도와 의회, 공공기관 금융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혁신전략TF를 구성해 금융중심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지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문 정부 대선공약 추진예산 15조, 지난 2년간 적게 반영”

문승우 의원 “1조2000억만 반영... 적극 노력 필요  
투자기업 유치 위해 과감한 기업지원책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18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전북도에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과 함께 정치권과 의공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라북도 지역 공약으로 10대 과제 31개 세부 이행사업을 제시했고, 추진 예산은 15조, 3,335억원 달하지만 취임 2년이 넘는 현시점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곤 없다”며 “추진 예산에 있어서

도 18년도와 올해 2년동안 반영된 예산은 1조2,193억에 불과해 대통령 임기내 약속한 공약내용의 30%도 채 이르지 못할 상황”이라고 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군산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군산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자동차 전장 부품연구센터’와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 집적화 단지조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 “부실기업 발생 원인, 부실 심사에서 기인”

오평근 의원



10년 전 조세 제정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도내 사회적기업이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부실 심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평근(전주2) 의원은 18일에 열린 36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

문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지정 취소된 도내 사회적기업만 16곳에 이를 정도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과정을 보면 영업의 지속성이나 사회서비스 실적 미흡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허술한 심사에서 출발했음을 암시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